

지역인재 장학사업에 500만원 기탁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부안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이 부안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설립된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진성 스님은 7월 8일 부안군청을 찾아 김종규 부안군수(나누미근농 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해 달라며 나누미근농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이 자리서 진성 스님은 "부안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뜻 깊은 일에 동참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부안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장학사업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장학금 기탁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향후 내소사가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며 "불자들과 함께 주변에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정기 후원회원 가입을 적극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지역의 대표적인 종교지도자로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려는 스님의 마음씀씀이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하신 장학금은 연간 300여 명의 부안출신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부안의 지역인재를 키우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제 청운사, 하소백련축제 개최

7월 8~17일, '문학속에 핀 백련' 주제

새우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 하여 하소백련지라 불리는 전북 김제시 청하면 청운사(주지 도원)에서 제15회 하소백련축제가 열렸다.〈사진〉

7월 8~17일까지 10일간 열린 이번 하소백련축제는 '문학 속에 핀 백련' 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 등이 진행됐다.

8일 청운사 무량수전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익산시 재능시낭송회의 시낭송과 미륵불 점안식이 식전행사로 펼쳐졌다. 이어 사포무용단, 남사당패의 줄타기, 현대무용, 대중가요, 탱고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됐다. 9일과 10일에도 오카리나 연주, 부토, 설장고 판소리, 궁중무, 기타연주, 마당극 등 테마별 공연이 하소백련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청운사 일원의 백련지에서는 전북문인협회와 수필과비평사에서 시, 수필, 시조 등 80여개의 작품을 배너로 제작해 전시했다. 또 도자기와 불화 전시, 서예, 도자, 조각, 가훈 써주기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밖에도 연잎밥, 연칼국수 등 연꽃을 재료로 조리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지역 佛心 하나로 결집하자"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 7월 13일 공식출범
젊은 인재양성 · 재가불자 신행개혁운동 다짐



7월 13일 열린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 출범식. 이 자리서 신도들은 재가불자 신행개혁운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광주지역 재가불자들의 불심을 증장시키고, 불법(佛法)을 수호하며 자비행을 실천할 신도회가 첫 발을 내디뎠다.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회장 이범식, 이하 신도회)는 7월 13일 광주 수자타(사찰전문음식점) 2층 연회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재가단체 규합에 나섰다.

출범식은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을 비롯한 지역사찰스님 50여 명과 각 사찰신도회 대표, 광주지역 불교신행단체 대표 등 광주지역 불교지도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이범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불교의 발전과 지역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세상의 진리를 나와 이웃, 지역사회, 더 나아가 중생의 이익을 위해 전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출가 수행자를 호법하고 광주지역 불교단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사회에 만연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풀고,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김정연 포교사단광주전남지역단장, 송승종 광주광역시불자회장, 국승인 광주지방경찰청불자회장 등 광역불교단체 8명과 광주지역 각 사찰 신도대표들을 부회장으로, 나웅인 삼성한의원장 외 11인을 이사로 위촉했다.

신도회는 출범식과 함께 △사찰호법 및 신도회 바로세우기 △불교단체의 발

지역불교단체장 임원 선임
호법 · 연대활동 · 복지사업 계획
"지혜 모아 자비보살행 실천"

전을 위한 지원활동 △기업 후원자 발굴 및 연대활동 △교육 · 포교를 통한 불교계 인재양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어린이 · 청소년 · 대학생 법회 육성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불자들의 신행개혁운동으로 '불자답게 살기 위한 실천' 으로 20가지의 실천운동을 제시했다.

행사는 법요식에 이어 출범과정과 의미를 담은 영상 상영, 출범선포식, 축하공연, 인사말, 격려사, 축사, 발원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은 격려사에서 "출범식을 통해 광주불교의 대사회적 역할, 지역주민과의 상생, 더불어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도회가 앞으로 많은 자비보살행을 통해 불교의 이념을 사회에 실천하는 좋은 도반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특히 이날 출범을 알리는 선포식에는 재가불자를 상징하는 4인(어린이대표-백선재 길상사 어린이회원, 청년대표-전인선 원각사 청년회장, 여신도대표-정법심 만덕사 신도회장, 남신도대표 이범식 신도회장)이 나서 선포문을 낭독하며 신도회가 지역사회 불심을 결집하는 데 역량을 바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신도회는 2년간 신도회장이 공석이었다. 지난 1월 성도재일연합법회에서 이범식 신도회장을 추대하고, 본격적인 단체 구성에 나섰다. 이후 5~6월 약 두 달에 걸쳐 광주지역 불교신행단체들과 연석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광주불교연합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날 출범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방황 극복하고 사회 동량 거듭나길"

여수 청암사, 광주소년원서
300명에게 대중공양



(사)청암봉사협의회가 7월 14일 광주소년원에서 마련한 '행복한 밥상'.

광주소년원생들을 위한 특별한 만찬이 열렸다.

여수 청암사(주지 지암)에서 설립한 (사)청암봉사협의회는 7월 14일 고령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를 찾아 '소년보호위원과 함께하는 행복한 밥상' 을 열고, 교직원과 소년원생 등 300여 명에게 고급 호텔식 점심을 제공했다.

광주라마다호텔이 후원한 이날 만찬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치킨, 육고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과일과 채식까지 더해져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연합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지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무더운 여름, 아이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서는 음식이 중요하다. 청소년기의 방황으로 이곳에 와 있지만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대중과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동량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한 김애준 회원은 "늘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 오늘은 특히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이곳에서 맛있는 것을 얼마나 먹고 싶은 나이일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청암봉사협의회는 지난 2015년에 이어 2년째 점심만찬을 제공한 것 외에도 지난 6월 8일 경기여자청소년자립생활관 학생 중 모범생 14명을 초청해 해상케이블카, 레일바이크 등 여수지역 문화체험 2박3일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광주소년원과 결연을 통해 40여 명의 회원들이 소년원생 멘토로 참여해 정기적으로 상담과 여가활동지원, 점심 및 특식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제불교 문화재 유산 등재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7일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는 7월 7일 서산문화원서 '백제불교유적 세계유산 등재방안 모색' 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도내 불교유적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와 이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서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가 기조발제를 했으며, 김선임 보원사 사무장, 임경호 충남도 문화재과 학예연구사, 이병렬 서산타임즈 대표,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상근 대표는 "우리나라는 세계유산등재가 마치 지자체 실적처럼 오인돼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한다"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까지는 10년에서 30년까지 오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부적인 연구와 준비, 유기적인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며 "과정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백제역사를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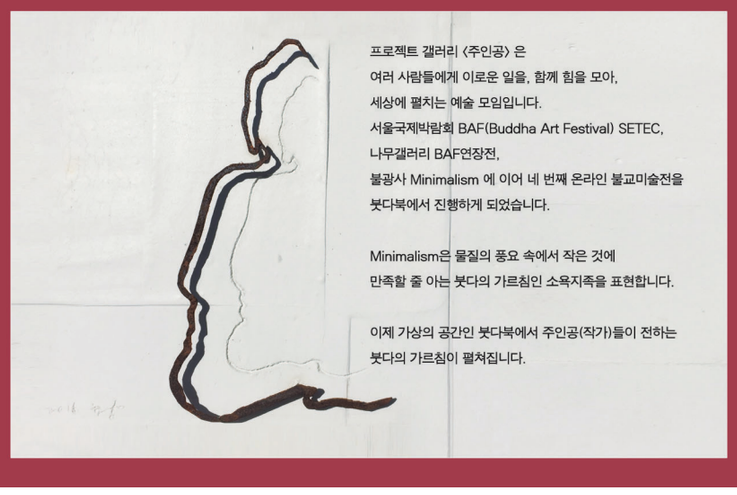
조동제 전북지사장

온라인 불교미술전

예상희
호종현
김지원
정길재
박혜상
안길상
황규철
달분(조은경)
이김천
박선정
명상맨(김영수)

Minimalism
작은 것이 아름답다

기간 6.1.~8.31.
전시 붓다북 02-953-7181
주최 主人公 共空 Project Gallery 주인공



프로젝트 갤러리 〈주인공〉 은
여러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을, 함께 힘을 모아,
세상에 펼치는 예술 모임입니다.
서울국제박람회 BAF(Buddha Art Festival) SETEC,
나무갤러리 BAF연장전,
불광사 Minimalism 에 이어 네 번째 온라인 불교미술전을
붓다북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Minimalism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붓다의 가르침인 소욕지족을 표현합니다.

이제 가상의 공간인 붓다북에서 주인공(작가)들이 전하는
붓다의 가르침이 펼쳐집니다.

불교전문쇼핑몰
붓다북 02.953.7181
서울 성북구 보문로38길 11 동일하이빌 B1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3번출구)
www.buddhabook.co.kr

품격있는 소전의식을 위한
연꽃 소전대



NAVER 연꽃소전대 검색

귀사찰에
품격있는 소전의식을 위한 연꽃 소전대 작품을 제안합니다.

작품성과 실용성 모두 완벽에 가까운 수제 작품입니다.

디자인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를 모두 획득한 작품이며 장인의 땀과 혼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열정이 담긴 작품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으로 귀사찰의 기제사나 천도제의 마지막 의식인 소전 의식을 준비 하신다면 사찰의 품격과 신도님들의 품격 또한 높여 귀사찰의 무궁한 발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 연 락 처
010-5904-2406
031-429-1077
불교조각연구원